

<2012년 9월 2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구시대 사람들이나 새 시대 사람들이나 모두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새 시대 새 역사로 온 사람들은 실상은 구시대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
2. 성자 주님을 신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성약역사의 사람들은 신약역사의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말씀 차원’이 다르니, 육도 혼도 영도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어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다. (→ 신약역사 사람들은 자녀 말씀을 듣고 사니, 그 육도 혼도 영도 자녀 차원으로 변화되어 자녀권에서 살고 있고, 성약역사 사람들은 신부 말씀을 듣고 사니, 그 육도 혼도 영도 신부 차원으로 변화되어 신부권에서 살고 있다.)
3. 성자가 육으로 쓰는 자의 ‘사명’에 따라 <말씀>이 다르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칭호>도 다른 것이다.
4. 현시대에는 성자가 초림하여 나사렛 예수를 그 육으로 쓰면서 ‘신약말씀’을 전하며 2000년 동안 이룬 <신약권 세계>와, 성자가 재림하여 시대 사명자를 그 육으로 쓰면서 ‘성약말씀’을 전하며 지금 이루고 있는 <성약권 세계>가 있다. 이는 마치 세상에 남자와 여자, 두 종류의 성별을 가진 다른 존재가 있듯한 것이다.
5. 시대는 항상 구시대 종교와 신시대 종교, 두 종교가 상대성을 이루면서 간다.
6. 신약역사 2000년 동안 신약 안에서도 수십 가지의 교파가 있었다. 천주교가 1600년 동안 역사를 펴 왔고,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되어 개신 기독교 역사가 일어났다. 개신 기독교 안에서도 수십 가지의 교파가 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안식교, 순복음 등이다. 교파는 달라도 모두 ‘자녀급 차원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안에 속한 신약 구종교다. / 성약 섭리역사만 하나

님의 새 역사다.

7. 호랑이, 사자, 표범, 치타 모두 고양이과에 속한다. 이와 같이 신약권 안에서 어떤 교파든지 결국 모두 동일한 <자녀급 차원의 말씀>이다. / 성약권은 마치 고양이과와 완전히 다른 사슴과와 같이 신약권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 사슴과는 고양이과와 달리 풀을 먹고 산다. 이와 같이 성약권은 신약권과는 ‘말씀’이 완전히 다르다. ‘땅의 말씀의 주인’도 다르다.

8. 성자 재림 전의 말씀 세계는 신약권 세계로서 <신약 자녀급 말씀>이고, 성자 재림 후의 말씀 세계는 성약권 세계로서 <성약 신부급 말씀>이다.

9. 구약 - 신약 - 성약의 차원은 별 - 달 - 해와 같다.

10. 남자에게는 아기집이 없어서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구조가 없어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 이와 같이 <신약말씀>을 가지고서는 땅에서 육도 ‘신부급’으로 휴거되지 않고, 그 영도 ‘신부급’으로 휴거되지 않는다. / <구약말씀>을 가지고서는 ‘자녀급’이 될 수 없었다. 자녀급이 되려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야 했다. / 이와 같이 <신약말씀>을 가지고서는 방향이 달라서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성자의 재림을 맞을 수 없다. 고로 못 맞고 지금 구시대에서 사는 것이다.

11.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고 때가 되면 생명을 탄생시키듯이, 이 시대 성약권에 해당되는 성자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른 자가 여자 입장의 신부같이 변화되어서 신랑 되신 성자 주님을 맞고, 육신이 땅에서 휴거되어 살고, 그 영은 하늘에서 오신 성자의 재림을 맞고 휴거되어 천국으로 간다.

12. 사람은 사는 위치에 따라 그 기후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먹는 음식에 따라 체질이 변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의 말씀을 듣되, 어느 차원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그 육도 혼도 영도 변화된다.

13. 구약말씀을 듣고 따르면 구약인이 되고, 신약말씀을 듣고 따르면 신약인이 되고, 이 시대 성자의 말씀인 성약말씀을 듣고 따르면 성약인이 된다.

14.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시대마다 목적인 바대로 상대의 사람을 창조해 나가신다.

15.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기 종으로 만드는 말이 다르고, 자기 친구로 만드는 말이 다르고, 자기 애인으로 만드는 말이 다르다. ‘말’을 가지고 상대를 만든다. 하나님도 성자도 ‘말씀’으로 상대를 만드신다.

16. 하나님은 시대마다 땅의 사명자를 보낼 때마다 반드시 ‘말씀’을 주어 보낸다. 그 ‘말씀 내용’을 보면 그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왔는지 알게 된다. 하나님과 성자께 새 시대 말씀을 받지 않고, 구시대에 속해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 온 자들의 말씀은 역시 종전신약말씀이다.

17. 신약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마 7:6)』 했다. 거룩한 새 신약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는 말이다. / 이 시대는 성약역사로서 신부로 만드는 말씀을 주신다. 역시 개나 돼지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전도한다고 하면서, 아무에게나 말씀을 주지 말아라.

18. 돌감나무끼리 2000년 동안 접붙여도 그 열매는 ‘돌감’이다. 돌감나무에 참감나무를 한 번만 접붙여도 ‘참감’이 열린다. 이와 같이 신약말씀은 2000년 동안 들었어도 자녀급밖에 안 되었다. 6000년 동안 듣더라도 역시 자녀급밖에 안 된다. 하루라도 성약말씀을 들어야 신부급이 된다.

19. 신부 말씀을 들어야 하루를 들어도 신부가 된다.

20. ‘말씀’으로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천국의 어느 차원에 거하느냐 하는

것도 ‘말씀 차원의 결과 세계’다.

21. ‘말씀’으로 육과 혼과 영이 변화된다.

22. 육과 혼과 육이 변화되라고 시대 말씀을 준다. 듣고 감동받고 바로 행해야 변화된다.

23. 말씀을 못 들으면 변화되지 않는다. 말씀은 자료다. 자료 없이는 못 만든다.

24. 이 시대 신부가 되는 말씀을 못 들으면, 어느 누구도 신부로 부활이 되지 못한다.

25. 이 시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영이 변화되지 않는다. 육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자기 영에게 그 영향이 가서 영의 변화가 일어난다.

26. 남자가 여자에게 X염색체를 주느냐, Y염색체를 주느냐에 따라 생명이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성별이 좌우된다. 여자가 마음대로 잉태될 생명의 성별을 결정하지 못한다. / 이와 같이 여자 격인 인간 마음대로 사명을 못 한다. 남자 격인 하나님과 성자는 사명대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을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받아야 시대 말씀을 주신다.